

毅菴 柳麟錫 研究

—義兵抗爭을 中心으로—

教 養 科 金 世 圭
助 教 授

目 次

- | | |
|--------------|--------------------|
| I. 緒 言 | 3) 水安堡 및 可興戰 |
| II. 乙未義兵의 蜂起 | 4) 堤川戰 |
| III. 毅菴의 舉義 | 5) 義兵의 西北移動 |
| 1) 毅菴의 大將推戴 | IV. 義兵抗爭의 制限性과 寄與性 |
| 2) 忠州戰 | V. 結 言 |

I. 緒 言

무릇 人間의 意識은 現實의 反映이다. 危機의 時代에는 危機의 意識이 생기고 戰爭의 時代에는 戰爭意識이 강해진다. 歷史意識도 마찬가지다. 人間의 歷史가 平和롭고 順坦하게 展開될 때에는 별로 歷史意識이 일어나지 않지만 歷史가 破局에 直面하거나 危機에 逢着할 때 강하고 뚜렷한 歷史意識이 擡頭한다. 歷史意識은 곧 歷史의 狀況의 自覺이요 反映인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上의 人物이 그 時代와 社會를 理解하는데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그 人物이 그 時代 및 社會의 重要한 局面을 代表할 수 있기 때문이다.

毅菴 柳麟錫은 天主教의 傳播와 洋船의 出沒로 開國의 風雲이 迫頭할 무렵인 憲宗 8년(1842)에 태어나서 나라가 日帝에 併呑된지 6년만인 1915년 亡國의 슬픔을 가슴에 안은채 異域遼東에서 돌아가시기 까지 실로 全生涯를 나라와 民族을 위해 살아오셨던 것이다. 일찌기 華西 李恒老 先生의 門下에서 先生의 遺志를 계승하여 斥洋斥倭를 주장하였으며 丙子 修好條約을 반대하여 洪在龜와 더불어 斥和疏를 올렸으며¹ 乙未事變과 斷髮令을契機로 곳곳에서 義兵이 일어났을때 여러 門人들의 推戴를 받아 日帝와 이들의 앞잡이인 開化輩 및 賣國奴들을 처단하여 오로지 主權恢復과 傳統文物의 固守를 주장하였으나 官軍인 張基濂에게 敗하여 西北으로 基地를 옮기며 끝내는 遼東으로 들어가 舊制를 지키며 主權恢復을 위하여 갖가지로 힘썼다. 그러하다 國王의 召命으로 歸國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士友들과 國民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몇차례의 歸國과 去國을 하며, 義諦를 맺어 國制와 禮義를 지켰

¹ 重菴集 卷3 「京畿江原兩道儒生 論洋情乃請絕和疏」

으며 鄉約組織으로 一進會에 대항하기도 했었다. 丁未條約이 締結되자 國內에서 벌어지고 있는 義兵抗爭은 國外로 부터의 援助가 없는한 失敗할 것을 豫想하고 持久戰을 펴기 위해 海參威에서 貫一約을 맺기도 했으며, 十三道義軍都總裁에 推戴되어 적극적인 抗日戰을 꾀하려 하였으나 韓日合併의 悲報에 다시 그는 高宗에게 播遷于俄領海參威를 進하는 疏를 올렸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實現되지 못하자 조용히 후배양성에 專念하다 1915년 遼東에서 74세로 生을 마쳤다.

本稿는 以上과 같은 社會의 急變期를 對處한 韓末 지식층 階級의 代表的인 人物인 毅菴 柳麟錫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初期 義兵活動의 主導者였던 그를 一瞥하므로써 初期 義兵의 樣相과 그후 反日運動의 思想的 潮流를 파악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乙未義兵의 蜂起

東學 農民蜂起를 鎮壓하고 淸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은 朝鮮에서 獨点的인 支配權을 樹立하여 朝鮮에 대한 侵略을 더욱 惡辣하게 強行함과 아울러 馬關條約에서 얻은 有利한 條件을 이용하면서 滿州大陸에 대한 침략까지 시작하였다.

한편 帝政 러시아는 1893년부터 Siberia 幹線鐵道 敷設을 開始하면서 極東進出을 積極化하였는데 이때 日本은 러시아의 滿州侵略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當時 列強의 矛盾을 이용하여 中國侵略의 有利한 條件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獨逸·佛蘭西의 힘을 합해 1885년 3월 日本政府에 대하여 遼東半島를 淸國에 返還하도록 干涉하였다. 三國干涉의 成功에 의해 러시아는 淸國에 대한 發言權이 強해지자 곧 滿州侵略을 強化하였다. 이와 아울러 朝鮮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력을 펼쳐왔다. 한편 三國干涉後 駐朝鮮 露國公使 Weber는 淸日戰爭 過程에서 세력을 잃은 閔氏一派에 접근하여 大院君과의 矛盾과 對立 및 日本의 露骨的인 內政干涉와 侵略行爲의 反感등을 이용, 이들을 策動하였다. 이에 閔氏一派와 일부 支配者들은 三國干涉에서 強大性を 보인 러시아에 依支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판단하여 곧 親露派가 되고 이들은 1896년 7월에 政變을 일으켜 親日內閣에 對立하여 親露內閣을 成立 시켰다.

이같은 事態에 直面하자 日本은 狂的인 冒險政策으로 必死的으로 親露派를 除去하려 하였으며 드디어 同年 10月 8日(陰曆 8月 20日)에는 閔妃를 燒殺하는 乙未事變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日本은 李完用, 李範晉, 李允用, 安愼壽등의 親露派를 제거하고 徐光範, 鄭秉夏, 金宗漢, 權螢鎭, 兪吉濬등을 중심으로 하는 親日派의 第四次 金弘集內閣을 成立시켰다. 그리고 10月 10日에는 廢后詔勅, 11月 15日을 期하여 太陽曆 使用과 年號를 建元으로 그리고 斷髮令을 頒布하였다. 이같은 斷髮令의 頒布는 現代化를 위한 일이지는 하나 民情을 무시한 拙速한 處事였고 이를 強制施行 함으로서 일반민중의 憤怒를 불러 일으켰으니 斷髮令 頒布를 契機로 일어난 義兵의 蜂起는 斷髮을 반대하는 단순한 保守的인 抗學만

이 아니라 日本侵略에 대한 反抗이었던 것이다.

廢后詔勅이 발표되던날 서울에는 倡義所告示의 이름으로 日本의 逆天無道함과 원수는 잊지않고 갚겠다는 告示文이 붙었다. 즉,

“逆天無道한 것은 倭賊이다. 그러나 天神이 위에있고 神明이 우리를 돌보아 준다. 어느나라 古今 歷史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이다. 罪惡이 하늘에 까지 알려졌으니 그 罪, 罰을 받아야 할것인데 간사하게 신문에 까지 발표하여 天下를 속이려 하니 이 이상 어리석은 인물들은 없을 것이다.……都下의 臣民과 八道の 백성들은 呼天痛哭하며 萬代後에도 잊지못할 이 원수를 두고 두고 잊을 수 없다.”²

고 하였다. 이러하자 民心들은 설레이게되고 大院君의 이름으로 京鄕各地에 이를 撫摩시키는 告諭文이 傳布되었다. 즉,

“…이즈음 들으니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서로들 뜯말을 돌려서 사람을 眩惑시키며 혹은 名分과 義理를 憑籍하면서 속으로 不測한 마음을 갖이는데 이것은 모두가 亂動을 좋아하고 禍를 즐겨하여 제스스로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³

그러나 8月 30日(陰曆)에는 前參判 李建昌, 洪承憲, 鄭元夏의 聯名으로 討逆疏를 올렸으니

“…아아 變이 일어난지 지금 열흘이 되는데 아직 한마디의 哭聲도 내지 못하고 한오라기 벼를 걸치지못하였으니 天地 人情에 어찌 차마 이럴 수 있읍니까 었더어 바라옵건데 聖上께서는 빨리 밝으신 명령을 내리시사 廢后의 勅令을 거두시고 禮를 갖추어 發喪하며 이어 罪人을 잡아 嚴히 다스림과 함께 賊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는 큰 義理를 펴서 8道の 臣下와 백성들로 지르기 天地間에 가득한 슬픔을 풀게하여 주옵소서”⁴

이어 崔益鉉, 尹泰興, 李南珪등은 上疏하여 廢后의 不當함은 물론 賊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것을 강력히 주장 하였다.⁵ 永興府使 李南珪는 請復王后位號討逆復讎疏를 올렸으니

“었더어 비옵건대 聖上께서는 크게 勇斷을 내리시어 속히 官員을 命하여 亂兵의 頭目을 잡아 언히 심문하여 그 사실을 케어내고 主謀者와 惡黨들을 모두 極刑에 처하셔서 나라의 법을 세우며 倫理 紀綱을 바로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外務官署에 命하여 約束을 어기고 禍를 즐겨하는 日本의 罪를 여러 同盟 各國에 公布하고 함께 討伐하기를 약속하며 陛下께서는 몸소 百官을 거느리고 光化門에 앉으셔서 신비와 백성을 모두 불러놓고…너희들 마음과 힘을 합하여 朕의 憤慨하는 바를 대적하여서 國母의 원수를 갚고 宗廟社稷의 辱을 씻게하라 하십시오…그렇지 않고 수치를 잊고 욕됨을 참아가면서 편안한 것을 찾아 구차히 지내려 한다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인심은 다 변하고 말것이니 다시 振作하려 해도 반드시 可望이 없을 것입니다.”⁶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王后의 복수를 갚고 宗社를 保存하자는 것이 당시 倡義討賊의

²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1970) p.147.

³ 黃玟「梅泉野錄」卷2 高宗 32年 乙未

⁴ 黃玟「梅泉野錄」卷2 高宗 32年 乙未

⁵ 前揭「義兵抗爭史」p.147.

⁶ 李南珪遺著「晚修拙辭」卷3.

大義였으니

“嗚呼 國母弑 而賊未討 縱我國民之不武 而激憤發怒 扼腕切齒 固舜性之宜有也 亦豈無憤 慷慨之流 不計成敗死生 欲鳴 復讎之義於天下者 此其危機 如江河之壅 而必決也”⁷

라든가

“宗國覆滅 人道永絕 何分朝野而觀望 何擇貴賤而坐待 誅一賊黨 殺一倭酋 沙泄神人之憤 而庶可慰坤殿 在天之靈 主上憤痛之心 東宮哀怨之情 亦可使 天下萬世 知君讐當復 國賊當誅 華不可爲夷 人不可爲獸則是伸大義於後世”⁸

라고 한 것처럼 成敗死生은 생각지 않고 일어나서 임금의 원수는 당연히 갚아야 하고, 나라의賊은 당연히 죽여야 하며, 中華는 野蠻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 大義를 띄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월이 되도록 抗日義擧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10월이 되자 서울과 京畿지방을 중심으로 檄文이 나붙고 知士들간에 비밀왕래가 빈번하더니 10월 11일 밤중에 林最洙 金在豐등에 의한 親日內閣 大臣들을 처단하려는 春生門事件이 일어났다.⁹ 그러나 親衛隊의 공격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와 전후하여 文錫鳳등이 報恩에서 擧義하여¹⁰ 討賊을 의친것을 始初로 하였으나 11月初에 官軍에 의해 解散되고 말았다. 斷髮令이 발표되고 갖가지 改革이 施行되자 保守的인 儒生들을 激奮시켰으니

“…吾國儒林 篤於守舊 有頭可斷 髮不可斷之”¹¹

라고 한 것이다.

“自是 舉國鼎沸 義兵四起”¹²

라고 한 바와 같이 反日鬪爭은 儒生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連結되어 갔다.

斷髮이 施行되자 特巡官 金炳始는 上疏를 올려 이의 撤回를 주장하였고¹³ 경기도 義兵將 金河洛은 親日派 大臣들이 임금을 危脅하고 임금의 玉體에까지 손을 대었다고 하여 이를 王后弑逆에 못지 않은 큰 變怪로 보아 痛憤하였으며 이는 婦女子와 庶民層에 까지 謙惡와 不信을 받았으니 그 결과는 斷髮令 施行과 함께 각 지방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義兵의 깃발 아래 뭉쳐 討逆討讎를 의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建陽 元年 1,2월에 걸쳐 金河洛, 趙性學,

⁷ 朴殷植 「韓國痛史」 第2編 47章 地方義兵條

⁸ 李正奎 「從義錄」 獨立運動史資料集 卷1 (1970) p.629.

⁹ 金允植 「續隆請史」 上卷 卷7 高宗 32, 乙未 10月 12日條

¹⁰ 黃玟 「梅泉野錄」 卷2 高宗 32, 乙未 11月

¹¹ 朴殷植 「韓國痛史」 第2編 47章 地方義兵條

¹² 黃玟 前揭書 卷2 高宗 32, 乙未 11月

¹³ 高宗實錄 卷33 建陽元年 1月 6日條

¹⁴ 獨立運動史 卷1 「義兵抗爭史」 p.159.

具然英, 金泰元, 申龍熙 등은 楊根, 砥平, 廣州, 安城등지에서 활약하였고 驪州에서는 前司果沈相禧가 砥平에서는 李春永, 安承禹, 金伯善이 春川에서는 李昭應이 聞慶에서는 李康年이, 許僞가 善山에서, 李偈과 金福漢이 洪州에서, 奇宇萬은 長城에서, 李秉採는 興陽에서 각각 舉義하였다.¹⁵

李昭應은 義兵이 이르는 곳 各營 各邑의 長官으로서 만일 便利할 것을 생각하여 觀望하여 呼應하지 않는 자나 賊의 便에 붙어서 軍情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夷賊 禽獸의 앞잡이요, 亂臣賊子의 徒黨이니 단연 軍法을 施行하여 먼저 베고 후에 報告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여기서 그는 특히 日本人에 대해서 倭奴 즉 왜놈이라는 극단적인 呼稱을 사용하고 倭奴와 거기에 아첨하며, 따라다니며, 國母를 弑害하고 君父의 머리를 강제로 짚은 무리들은 不共戴天의 원수로 규정지우며 그들에 대한 復讎 雪恥를 돌도없는 큰 義理로 내세워서 義兵의 名分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觀察使兼 宣諭使로 내려온 曹寅承을 斬刑하니 開化派로서 義兵에게 殺害당한 첫 케이스가 되었으며 또 淸平川에 살던 參判 趙寅熙가 義兵側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殺害 당하였다.¹⁷ 그러나 官軍의 맹렬한 공격과 戰術 戰略에 익숙치 못한 선비들이었으므로 또 城中에 官軍과 內通하는 자가 있어 軍心이 흩어지고 形勢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 柳毅菴의 陣으로 合流하였다.

한편 砥平에서는 李春永, 安承禹, 金伯善등이 建陽 元年 正月 17일에 堤川으로 들어가 留陣한 다음부터 義兵陣의 活動은 상당히 활발 하였다. 즉 堤川에는 柳重教, 柳毅菴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儒學을 講論하여 遠近지역의 儒生들이 많이 왕래하고 옮겨 居住하기도 하였다. 李春永 義兵陣이 堤川에 들어오자 斷髮令등 改革政治에 앞장섰던 郡守 金益鎭은 忠州府로 달출하였으며 柳省齊 門下의 李弼熙, 朱庸奎, 徐相說, 李範稷, 申芝洙등이 모두 堤川으로 모여들어 義兵陣의 聲勢는 크게 떨쳤으며 八道에 檄文을 돌리고 軍사를 모집하였다.¹⁸ 그러나 官軍의 공격으로 丹陽으로 옮겨 丹陽郡守 權灑를 잡아죽이고 官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意見의 不一致로 李弼熙는 寧越로 安承禹는 關東方面으로 각기 分散되었다.¹⁹

한편 金弘集 內閣에서는 建陽 元年 正月 18일에 內部協辦 劉世南을 江原道 宣諭使로 임명 다음과 같은 詔勅을 내려 보냈다. 즉,

“聞하니 原州地方 人民이 無賴輩의 傳訛煽動으로 堵를 안치 못하고 群起하여 群邑을 騷擾케 한다 하니 朕이 甚히 凜然한지라 內部協辦 劉世南을 命하여 그 地方에 馳往하여 朝家の 命意를 宣諭하노니 爾民人들은 其各開悟하여 鄉里에 歸하여 業을 安하고 蠢動치 말라.”²⁰

¹⁵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159.

¹⁶ 李昭應遺稿「習齊先生文集」手寫本 卷7

¹⁷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166.

¹⁸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166.

¹⁹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166.

²⁰ 官報 建陽元年 正月 19日字 號外

고 하고 뒤이어 新任 春川府 觀察使 曹寅承을 春川地方 宣諭使로 大邱府 觀察使 李重夏를 嶺南地方 宣諭使로 兼任시켜서 勅命을 전달하며 義兵들의 解散을 권고하며 住民들을 生業에 安定하도록 宣諭하였다. 그러나 義兵陣에서는 이들 宣諭使가 갖이고 간 勅命이 진짜 王命이 아니라 逆臣들이 王命을 憑籍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宣諭를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또 勅命을 갖이고 간 宣諭使까지 逆賊의 무리 또는 앞잡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曹寅承은 義兵에게 잡혀 處斷되었으며 다른곳의 宣諭使도 자유로이 활동하기 힘들었다.

한편 이같이 親衛隊兵力이 義兵鎮壓을 위하여 지방으로 출동한 틈을타 親露派의 策動으로 國王의 俄館播遷이 일어나고 金弘集 以下 親日內閣이 被殺 또는 追放되자 王은 義兵들에게 다음과 같은 宣諭 詔勅을 내렸다.²¹

첫째, 그동안 수십년간 있었던 國家의 變亂은 國王이 사람을 잘못알고 일을 잘못된데서 이루어진 것이니 모두 國王 自身の 過失이었다.

둘째, 8月の 큰 事變은 逆賊, 魁首들이 모두 처벌되었으니 神과 사람이 함께 憤해 하던 것이 풀릴만 한즉 그밖의 사람들은 官吏, 軍人들 모두 용서 한다.

셋째, 斷髮하는 일은 원래 國王의 本意가 아니였고 妖邪한 賊의 무리들이 強制에서 왔던 것인데 지금부터는 다시 들어 말하지 않겠으며 衣冠制度 같은것도 각자의 便利에 맡긴다.

넷째, 각처에 義兵이 일어나서 官軍과의 전투가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지금부터 지방에 파견하였던 京軍도 곧 소환하니 義兵들은 모두 解散하여 자기 직업에 安定하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義兵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니 政變이 있을때 마다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詔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자 政府에서는 崔益鉉, 李道宰, 申箕善 같은 名望있는 인물을 宣諭官員으로 임명하여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崔益鉉, 李道宰는 당초 宣諭員의 임명조차 거부하였으니 그 이유를 崔益鉉은

첫째, 일부의 逆賊이 處斷되었다고는 하나 그중에 趙羲淵, 兪吉濬이 四逆으로 指目되었는데 그들의 親族은 모두 서울안에서 그대로 편히 살고 있으니 逆賊의 처형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日本은 이름은 交隣이나 사실은 逆賊들을 돕고있다. 이제 그 日本人 軍隊가 그대로 나라에 있는데 倭賊討伐을 위해 나선 義兵들을 무슨, 던목 무슨 말로 해산하라 宣諭할 것인가.

셋째, 衣冠등은 편리한대로 한다지만 본래 制度 그대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등의 이유로 나가지 않았으며²² 洪川地方으로 나갔던 宣諭使 南宮憶은 義兵들에게 쫓겨 돌아오고 南路宣諭使로 나갔던 申箕善은 忠淸道 鎭川地方에서 義兵에게 抑留되기도 했었다.²³

²¹ 黃玿 梅泉野錄 卷2 建陽 元年 丙申條

²² 勉菴集 卷4 「宣諭大員命下後陣懷待罪疏」

²³ 續陰請史 卷8 建陽元年 2月 22日

한편 政府에서는 宣諭와 함께 地方과 中央의 兵力을 동원하여 武力으로 義兵을 鎮壓하려 하였다. 이때의 兵力을 살펴보면 乙未改革에 의해 各道의 水營, 兵營등을 모두 폐지하고 警務廳과 侍衛隊를 설치 하였으며 뒤이어 侍衛隊를 訓練隊에 흡수하였다가 9月 13日(陰曆)字勅令에 의하여 國內의 陸軍 兵力을 親衛隊와 鎮衛隊로 나누어 親衛隊는 서울에 鎮衛隊는 지방에 두었다. 各衛의 兵力은 親衛隊는 4개 中隊를 1개 大隊로 編成하여 3개 大隊로 하였으며 鎮衛隊는 平壤과 全州에 각각 1개 大隊씩 編成하였으니 鎮衛隊 1개 大隊兵力은 2개 中隊씩 이었다. 그리고 建陽 元年 3월에 와서는 親衛隊를 다시 第4, 第5의 2개 大隊를 增設하여 聯隊 兵力으로 編成하였다. 그리고 地方에는 警務廳 主管下에 巡檢을 각 觀察府에 배치하여 治安關係를 담당하게 하였다.²⁴ 乙未 6月 6일에 內部大臣 朴定陽의 奉勅義定으로 定해진 巡檢 총수는 1,500명 이었다.²⁵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日本 守備隊 兵力이 동원되어 義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III. 毅菴의 舉義

1) 毅菴의 大將推戴

乙未事變이 발생하고 斷髮令이頒布되어 國內 人心이 激仰되어 있을때 毅菴은 內艱喪을 당하여 선비들에게

“大禍至此 處義有三 一曰舉義掃清 二曰去而守之 三曰自靖 各從其志”²⁶

라 하고 本人은 去國을 결심하여 遼東行을 작정하였으니 그 이유는

“…爲作 去守之行 盖携手同志 尋向堯舜古城 共得衣冠 共守禮義 共讀師書 存得一縷華脉 恭俟天心而待天下之清也”²⁷

라고 한 것처럼 한가닥 中華의 命脈을 堯舜 文武의 옛땅에서 보존하고 혹시 毅菴과 마음이 맞는 이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多少에 따라 中華의 法을 써서 野蠻을 文明으로 변하게 한다면 天下 後世에 말이 없지않을 것이며 또 宋尤菴 이후도 中國의 大陸이 물속에 잠긴채 3백년이 지났으나 궁극에 달하면 다시 통하는 理致를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²⁸ 그리하여 朱庸奎, 朴胄淳, 朴貞洙, 李正奎, 鄭華鎔, 吳寅永, 崔炳軾, 崔烈, 洪璇杓, 李肇承등이 그를 따르기로 하였다.²⁹

한편 毅菴은 李熙熙 李春永, 安承禹가 義兵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보내어

²⁴ 「文獻備考」卷110 兵考 2.同 238卷 職官考 25, 更張官制

²⁵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191.

²⁶ 李正奎「從義錄」

²⁷ 「毅菴集」卷55 年譜 景印文化社刊(1970).

²⁸ 朴貞洙「下沙安公 乙未 倡義事實」義兵抗爭史資料集 卷1 所載(1970) 乙未 11月 20日 丙戌

²⁹ 「毅菴集」卷55 年譜

“오늘의 變은 天下萬古에 더없는 큰 變이다. 諸公은 몸소 天下萬古에 다시없는 큰일을 부담한 것이니 그 책임이 重하지 않는가”³⁰

라고 격려하며 丹陽 첫싸움이 있은후 군사들이 많이 흩어지고 徐相說 李春永등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에 敗하고 군사가 흩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싸움에 이기고도 군사가 흩어진다는 것은 웬말이나”³¹

고 하며 사람을 보내 여러 장수를 寧越로 모이게 하고 자신도 寧越로 들어갔다. 여기서 여러 장수들은 군사들의 마음이 억세고 거칠어서 大將을 모욕하고 선비들을 능멸하여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毅菴에게 大將을 맡아주길 간청하였다. 그러나 毅菴은

“내가 親喪을 당한지 몇날이 압되므로 여기에 잠시 머무르는 것도 마음이 송구한데 하물며 喪服을 벗고 從軍하여 도진 독숨이 人倫에 거둬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평소에 經書를 講論할 적에 내가 다소라도 앞선 선배라 하여 감히 諸君들의 推尊을 받았지만 군사일에 이르러서야 諸君보다 낮지 못하면서 다만 더할 수 없는 죄를 보낼 따름이니 諸君은 그만두게”³²

라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만일 이 일이 중지되면 머리각이는 禍는 급해지고 길 또한 막혀 나간대도 遼東에는 들어가 지 못하며 물러간대도 禍는 면하지 못하고 비록 三年喪을 온전히 마치려 하신대도 그것인들 그대로 하실 수 있사오리까, 또 일의 輕重을 헤아려 본다면 先王의 大道가 망하는 것과 한사람의 喪主노릇 하는것과 어느 것이 중하다 하오리까”³³

하였다. 그리고 여러 長老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그날로 大將의 任을 맡고 李春永을 中軍 安承禹를 前軍, 申芝洙를 後軍, 金伯善을 先鋒將, 安成海도 友軍將, 元奎常을 左軍將, 朴胄淳을 參將, 張忠植을 司客, 李肇承, 洪選杓, 李起振, 鄭華鎔을 從事로 하였다.³⁴ 이와 같이 部署를 정한뒤 李敏玉, 崔進士, 朴主事, 申處士의 4명을 官軍과 日人의 密貞으로 軍機를 홀트리고 윗사람을 멸시하게 한 죄목으로 처단하였다.³⁵ 그러하자 輕動했던 군사도 安定되고 懦弱했던 군사들의 士氣도 높아졌으며 각처에서 義兵이 물려오자 軍容을 정돈한뒤 義陣이 堤川에 留陣하고 8道에 檄文을 보내어 원수를 잡고 賊을 討伐할 것을 호소 하였다. 檄告八道 列邑書에서 먼저 이러한 罔極한 變을 당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음을 원통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어

³⁰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 p.194.

³¹ 李正奎「從義錄」 p.20.

³² 李正奎「從義錄」 p.20.

³³ 李正奎「從義錄」 p.20.

³⁴ 李正奎「從義錄」 p.20.

³⁵ 李正奎「從義錄」 p.20.

“...國母之讐 己是切齒 慘酷尤甚 君父之尊 又見毀形 破冠裂裳之餘 又曹此凶極之凶禍 翻天倒地之極 莫保我各受之秉彝 禽獸我父母之身 此何事也...堯舜禹湯帝王之傳 至今日而壁絕 孔孟程朱聖賢之脈 更無人而扶持...成敗利鈍 非吾所靚 擇熊掌而斯取 輕重大小 於此焉分 衆心皆移 苟無百靈之所佑 國運復啓 將見四海之永清仁者之無敵 勿疑 士師之用誅何待 茲敢爲先學之地 遂以此布告于人 上自公卿 下至臣庶 孰無哀憫 切迫之志 此誠危急存亡之秋 各自寢苦枕戈 亦皆赴湯蹈火 期區宇之再造 見天日之復明 嗚呼但爲功於一邦 實是有辭於萬世 如是馳書曉諭之後 有或違令違慢之人 即是逆黨之同歸 斷當移兵而先討 各宜銘臚 無至噬臍 用盡徵誠 其伸大義”³⁶

라고 하였다. 즉 義兵을 일으키게 된 이유를 國母가 왜놈에게 죽고 君父가 머리를 깎이고 衣冠을 찢기는 이런 禍를 당하니 天地가 顛覆되고 固有的 理性을 保存할 길이 없으며 부모에게 받은 몸을 禽獸로 만들어 버리고 머리털을 깎이니 이런 變을 보고 舉義하게 된 것이라고 前提하고 成敗利鈍은 알바가 아니요 義理를 판단해서 이길을 택함에 輕重과 大小가 구분되는 것이니 大衆의 마음이 모두 여기에 쏠리니 어찌 온갖 神靈의 보호가 없겠느냐 하고 이에 義兵을 일으켜 이 뜻을 布告하노니 위로는 公卿에서 아래로는 庶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一心하여 討賊에 나서자고 권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만약 이같은 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곧 逆賊의 무리로 보아 먼저 討伐할 것이니 모두 誠意를 다하여 大義를 널리 펴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고 있다.

2. 忠州戰

毅菴은 堤川에 留陣한지 얼마뒤 丹陽郡守 權灑과 淸風郡守 徐相耆를 잡았는데 이들은 親日內閣의 政令을 急速히 施行하여 백성들로 부터 많은 원망을 받고 있던 자들로서 斬刑하여 본보기로 삼았다.³⁷ 한편으로는 忠州府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곳은 湖西地方의 要地일뿐 아니라 觀察府가 되어서 많은 官軍과 日本軍이 集結하여 있었으므로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곧 湖西一帶를 장악하는 契機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義陣에 들어온 報告에 의하면 忠州에는 京軍 4백과 倭兵 수백 地方隊 4백명이 있어 선불리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堤川 출신의 노련한 砲軍 徐長石과 嚴八龍을 보내어 비밀리 忠州城에 潛入시켜 그들과 因戚이 되는 地方隊의 將校와 만나 그를 권유하여 內應하기로 한 다음 忠州로 공격 하였다.³⁸ 이때 義陣의 形勢를 보면 銃을 갖인자가 불과 4백명으로 微弱했으나 이런 弱點을 隱蔽하기 위하여 堤川 平昌등지의 民兵을 많이 동원하여 겉으로는 聲勢가 크게 하였다. 그리하여 承旨 禹冀鼎으로 堤川義兵將을, 李元厦로 平昌義兵將을 삼아 3천여의 民兵을 거느리게 하고 承旨 李肇承으로 5백여의 民兵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³⁹ 한편 忠州城에는 義兵의 공격을 미리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황하였고 城壁을 지키던 地方隊 중에는

³⁶ 李正奎 「倡義見聞錄」 義兵抗爭史資料集 卷1 所載(1970).

³⁷ 獨立運動史 卷1 「義兵抗爭史」 p.200.

³⁸ 李正奎 「從儀錄」 丙申年 正月 3,4日條

³⁹ 李正奎 「從儀錄」 丙申年 正月 3,4日條

미리 義兵과 內通한 자가 있어 義兵의 來襲에 義兵이 오면 모두 다 죽는다고 외치자 모두 총을 버리고 몇몇 日本軍이 대항했으나 義兵에게 살해당하고 義兵들은 무사히 忠州城에 入城하였다. 그런뒤 陣容을 정비하고 砥平砲軍 吳莊問은 장교의 신분임에도 城中에 잠복한 일본군을 수색하느라 建物과 家具를 파괴하여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목베어 본보기로 삼았다.⁴⁰ 또 忠州府 觀察使 金奎軾이 잡혀오자 倭의 앞잡이가 되어 行悖 反逆한 罪를 일일이 論考하고 목을 베었다. 당시 義陣에서는 權瀟·徐相耆 金奎軾과 平昌郡守 嚴文煥을 四逆으로 指稱하였다.⁴¹ 이같은 堤川義兵의 忠州入城은 각지의 義兵을 鼓撫하였으며 湖西地方 召募將으로 나갔던 李範稷은 天安郡守 金炳肅을 처단하고 宣諭使 申箕善을 잡아 가두었다. 또 毅菴은 忠州城에서 內外百官에게 檄文을 보내어 官吏들의 警覺心を 促求하였다. 즉

“...안으로는 公卿大夫에서 밖으로는 敎使 監司 守令등에 이르기 까지 한사람도 원수를 잡고 부끄러움을 씻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삼는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이는 唐 玄宗의 이르라 24 郡中에 義士는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본래 草野의 한 백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名分과 義理가 비록 祿을 먹고 벼슬하는 자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曠野에 대강 春秋大義를 들은바 있는데 이 大義란 진실로 上下 貴賤을 막론하고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임금의 원수를 잡지 않아서는 안되고 文明과 野蠻의 區分을 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宗廟社稷이 危態하면 붙잡아야 되는 것 입니다. 民生이 陷沒하면 건져내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⁴²

라고 內外百官에게 義兵抗爭에 나설것을 권유하고 이어서 그는

“죽고 사는것을 돌아보지 않고 事勢나 力量을 헤아리지 않고 혹은 몸뚱이를 휘두르며 외치고 혹은 장대에 깃발을 달고 일어설 것이니 그 情이 가엾기도 하고 그 形勢가 외롭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부터 取舍選擇을 결정하고 忠義를 奮發하여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하여 한덩어리도 뭉쳐 적의 徒黨을 掃蕩함과 동시에 憤을 풀고 부끄러움을 씻으며 大義를 天下에 편다면 어찌 公私간에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난날에 賊의 黨에 뛰여든 자라도 진실로 큰 공을 세운다면 그 죄를 면하게 되리니 자기 마음을 뉘우쳐 함께 大事에 참여한다면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까.”⁴³

라 하였다.

한편 忠州城에 入城한 다음날 부터 日本軍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前日에 觀察使 金奎軾이 佳興에 駐在해 있던 日本軍에 增員을 요청한 바 있었기 때문에 增員軍이 義兵이 入城하던 그날 밤에야 도착하여 다음날 부터 日本軍은 義兵을 공격하였다. 日本軍은 南山으로 들어와 義兵을 공격했으나 많은 死傷者만 내고 퇴각하자 義陣에서는 洪大錫, 鄭翼, 黃疇穆 등을 보내어 有酒幕, 金串, 彈琴臺, 丹月등 忠州주위의 9개의 要所에 파수를 보게 하고 끊임없는 日本軍의 공격을 모두 물리쳤다.⁴⁴ 이렇게 日本軍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근지방의

⁴⁰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200.

⁴¹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p.200.

⁴² 金正奎「倡義見聞錄」

⁴³ 金正奎「倡義見聞錄」

⁴⁴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正月 17日條

義兵들이 忠州城으로 물러 들었으니 李長津, 文欽은 丹陽砲手 수백명을 長鬚의 申泰洪은 湖西군사 수백명을 朴世和, 尹應善, 尹正燮, 尹陽燮, 沈漢洙, 任鎬, 申永春, 申永休등이 자기 忠州城으로 물러왔다.⁴⁵ 한편 日本軍 수백명이 達川에 침입하자 中軍 李春永으로 막게 하여 5,60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勝勢를 파서 水安堡의 賊을 공격하기로 하였으니 水安堡는 鳥嶺아래 있는 倭兵站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나 군사들을 격려하며 督戰하던 李春永이 戰死하자 戰意가 喪失되어 義兵들은 退却하고 말았다.⁴⁶ 이로 말미암아 鳥嶺의 험한 地利的 條件을 차지하여 嶺內外를 연결하고 서울 進出을 계획하였던 李春永의 계획은 挫折되고 그의 죽음은 戰勢에도 많은 영향을 갖어와 무리한 공격에서 온 失手が 오히려 軍中 大勢에 逆影響을 주었다는 점은 후일의 龜鑑이 될 것이다.

한편 忠州城에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나 날씨도 춥고 준비도 완전하지 못하여 日本軍은 忠州城 밑까지 들어와 南山에 砲를 설치하여 城中을 공격하여 몇일만에 걸친 치열한 攻防戰이 계속되었다.⁴⁷ 사태가 이러하자 밖에서 오는 救援도 끊기고 식량도 부족하고 義兵의 死傷者수는 늘어가니 民心은 자연 墮요되고 朱庸奎는 군사들을 督戰하다 戰死하자 毅菴은 22일밤 忠州城을 포기하고 馬峙를 넘어 淸風府로 퇴각하였다.⁴⁸ 이와 같이 義兵陣이 忠州城에 入城한 다음날 부터 日本軍과의 15日間の 치열한 攻防戰을 벌려 결국 義陣이 退却하였지만 그동안 義陣의 抵抗도 굉장하여 精銳를 자랑하는 日本軍으로도 苦戰을 면치 못하였으니 日本公使館記錄中 明治 29年 3月 17日 字 釜山 一等書記官 加藤增雄이 辨理公使 小村壽太郎에게 報告한 文書를 살펴봐도 알 수 있으니 즉,

“忠州府는 2月 17日이래 暴徒의 所據가 되어 同地의 險要를 힘입어 精銳를 모아 死守하고 있어 我守備隊가 數次 이를 공격하였으나 衆寡不敵 容易하게 이를 陷落시킬 수 없었으므로 드디어 3月 5日에 이르러 我守備隊 3개중대는 힘을 합하여 포위 공격하여 倅地에 이를 陷落시켜 暴徒는 多數의 武器, 彈藥, 糧食을 버리고 丹陽方面으로 潰走하였다”⁴⁹

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義陣에서는 安承禹를 中軍으로 삼고 堤川에 다시 留陣하여 군사를 모으고 兵器를 수선하고 부상자를 위로하며 李範戴와 法興寺의 僧이 密偵이므로 처형하고 부랑배 李弼翼도 목베고⁵⁰ 元道常으로 守城將을 삼고 洪大錫으로 前軍將을 삼아 淸風의 北倉津을 지키게 하고 申芝洙로 忠州의 길목을, 張益煥으로 丹陽쪽을, 李亨九로 開川쪽을, 金敬憲으로 原州방면을 수비케 하였다.⁵¹

⁴⁵ 李正奎 「倡義錄」 丙申年 正月 5日條

⁴⁶ 李正奎 「前揭書」 丙申年 正月 5日條

⁴⁷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正月 17日條

⁴⁸ 朴貞洙 前揭書

⁴⁹ 日本公使館記錄 「1896年 本邦人 被害 = 關スル件」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⁵⁰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正月 24日條

⁵¹ 前揭書 「義兵抗爭史」 p.213.

한편 聞慶에서 舉義하였던 李康年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고 權灝善은 永春에서 山砲手를 거느리고 金應良등 10여명의 忠州砲兵과 韓東直, 李麟榮, 李明魯등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리하여 李康年을 遊擊將, 韓東直을 參將, 李明魯를 嶺西召募將으로 任命하여 義陣이 다시 활발해 졌다.⁵² 한편 徐相說은 元容正과 함께 慶尙道에 들어가 檄文을 전하고 군사를 召募한 다음 嶺南七邑 즉 安東, 禮安, 禮泉, 豊基, 榮州, 奉化, 聞慶의 義兵將이 禮泉에 모여 徐相說을 盟主로 推戴하여 흰말을 잡아 그 피를 마시며 盟誓하였으니

첫째, 逆賊의 便이 되지말것(母黨逆)

둘째, 中華制度를 變更하지 말것(母變華制)

셋째, 죽고 사는것으로 하여 마음을 바꾸지 말것(母以死生易心)

넷째, 두 마음을 갖이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것(母携貳自私)

다섯째, 賊의 등정을 보며 나가지 않는 일이 없을것(母頑寇不進)

무릇 우리들 같이 맹서한 여러陣은 盟誓가 끝난후에도 서로 좋은 말을하며 한결같이 약속을 遵守하며 春秋大義를 밝히며 사람과 짐승의 큰 구분을 가려서 나라안을 깨끗이 하고 王室을 튼튼히 한다. 이 盟誓를 變하면 神과 사람이 함께 베인다”⁵³ 라 하였다. 그런뒤 倭의 便이라고 認定된 禮泉郡守 權仁馨, 義城郡守 李觀永, 盈德郡守 鄭在寬을 斬刑하고 各陣의 군사를 연합하여 尙州 胎峰의 日本守備隊를 공격하여 9시간에 걸친 전투끝에 큰 타격을 준뒤 豊基로 退却하였다.⁵⁴

3. 水安堡 및 可興戰

위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얼마간의 군사들의 휴식을 취하며 兵器修理 및 訓練을 마친뒤 各處의 義陣과 연락하며 水安堡 및 可興의 賊을 공격하였다. 먼저 李康年에게 6哨의 군사를 거느리고 前軍將 洪大錫과 함께 水安堡의 賊을 공격케 하였으니 水安堡는 새재(鳥嶺)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地利的으로 매우 중요하기에 日本軍은 일찍부터 여기에다 兵站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지난달에 李春永이 忠州城의 防禦를 굳게하기 위하여 이곳을 공격하다 戰死하였던 것이다. 반면 日本軍도 이곳의 兵力을 增強하여 공격과 방어의 據點으로 삼았기 때문에 賊의 防禦態勢는 상당히 堅固하였다. 그래서 자연 彼我間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賊兵 몇명만 射殺했을뿐 기회를 노렸지만 如意치 않고 軍程의 輸送등 불편이 많아 西倉으로 退軍하였다.⁵⁵ 그런데 이때 徐相說이 胎峰의 賊과 聞慶의 賊兵站을 공격하기 위해 이지방의 地理를 잘 아는 장수를 보내어 새재의 길목을 막아 적이 서로 往來하며 救援하지 못하게 하여 주기를 本陣에 요청하자 本陣에서는 다시 李康年으로 하여금 9哨의 군사를 거느리고 中軍 尹基榮과 함께 聞慶의 秤川으로 進軍하고 3月 26日에는 새재에 당도하여 軍器

⁵² 朴正洙 前揭書 丙申年 正月條

⁵³ 前揭書 「義兵抗爭史」 p.235. 朴正洙 前揭書 丙申年 2月 13日條

⁵⁴ 金義煥 「日帝의 朝鮮侵略과 初期義兵鬪爭巧」 東國史學 9,10合輯(1966), p.92.

⁵⁵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2月 6日條

庫를 부수고 火藥, 彈藥, 硫黃, 鳥銃등을 꺼내 東院에 주둔했으나 적의 奇襲을 받아 德周 근처로 退却하여 군사 5백여명을 이끌고 赤城에 주둔한 禮泉副將 張文根과 공동전선을 펴려 했으나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徐相說은 胎峰에서 敗戰하였다.⁵⁶ 이에 李康年은 새재아래로 往來하며 出沒하는 賊을 공격하며 前軍將 洪大錫과 약속하여 大錫은 水安堡의 賊을 공격키로 하고 李康年은 새재를 지키기로 하였지만 大錫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구나 적의 기습을 받아 秋致敬등 용감한 병사 10여명이 戰死하고 大錫은 西倉에 留陣하니 李康年은 단독으로라도 기어이 水安堡의 賊兵站을 공격하려 進軍했으나 中軍 尹基榮이 聞慶에서 적의 기습으로 敗戰하니 李康年은 부득이 柞川으로 들어갔다.⁵⁷

한편 可興方面의 賊에 대해서는 3月 16일 공격을 開始하였으니 先鋒將 金伯善을 중심으로 後軍 및 左右軍이 合勢하여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忠州의 梅雲에 머무르며 군사들의 增援을 요청했다. 그러나 中軍將 安承禹는 이를 허락치 않았고 또 京畿義兵將 沈相禧는 原州에서 淸風쪽으로 왔다가 구원해 준다고 말하고 실제 전투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다만 參將 韓東直만이 原州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堤川으로 나오다가 院西에서 可興으로 進軍하는 堤川 義兵들을 만나 싸움터로 나갔으나 當初 바라던 兵力의 增援이 如意치 않았고 더구나 戰鬪時에 韓東直이 거느린 군사는 먼저 싸우기를 주저하여 멀리 退却하였다.⁵⁸ 3月 19日에는 賊兵 수명을 사살했을뿐 별다른 戰果를 올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金伯善등 일부 병력이 처형되어 결국 義陣 자체를 弱화시키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金伯善은 다른 武將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칠고 강하였으며 또 學識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義兵陣의 中樞勢力을 이루었던 儒學者들과는 서로 맞지 않았으며 따라서 公的, 私的으로 대립과 軋轢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可興戰에서 行動이 一致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安承禹가 증원군을 보내지 않은데 대한 反感등 儒學者 幹部들과 對立 相違에서 오는 것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를 반대하는 側의 非難이 可興戰을 계기로 더 커지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를 衝動하여 아예 군사를 나누어 獨立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는 뜬소문이 나게되었다. 그리하여 陣中의 인심이 설레이게 되었다.⁵⁹ 李正奎의 從義錄에 金伯善事件을 보면 아침을 먹고 陣法을 연습하는데 金이 建壯한 군사 30여명을 시켜 총을 메고 바짝 뒤따르게 하고는 칼을 휘두르며 陣中에 들어와 긴칼을 높이 들고 곧장 先生의 자리로 달려드니 선생이 和平한 말씨로 타이르자 칼을 던지고 엎드림으로 그를 묶게 한뒤…아직 大義를 펴지 못하였는데 萬軍의 規律이 너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나 부득이 諸葛孔明이 울면서 馬속을 배던 일같이 하는 것인 즉 너는 나를 원망말라고 하였다.

⁵⁶ 朴貞洙 姜熙順 「雲崗先生 倡義日錄」 卷1 丙申年 2月條 義兵抗爭史資料集 所載(1970).

⁵⁷ 前揭書 「義兵抗爭史」 p.257~8.

⁵⁸ 前揭書

⁵⁹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2月條

⁶⁰ 李正奎 「倡義錄」 前揭書 「義兵抗爭史」 p.44.

金伯善事件에 대해 騎驢隨筆에서도

“賊兵이 앞에 있고 우리는 약하고 賊은 강하니 비록 보통 군사라도 될 수 있는대로 糾合하여 세력을 확장하여야 할 것인데 더구나 호걸스럽기 伯善같은 사람이야! 그의 罪라는 것이 일시 憤을 참지 못한 것인데 改過遷善할 것을 생각지 않고 어찌 그렇게 아낌없이 죽이고 말것이라 그중에는 반드시 曲節이 있을 것이니 兵權의 폐את길을 두려워 함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揮下의 장수가 功을 세우는 것을 猜忌함인가 平民에게 辱을 본것을 憤하게 여겨서인가 원래 義理라는 것은 賊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다. 可與外음에 伯善이 安承禹에게 구원을 청하였는데 安承禹가 군사를 보내지 않아서 伯善이 敗하고 義兵들도 그 氣勢가 꺾이게 되었으니 그의 憤怒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大義를 내세워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적을 토벌치 않고 먼저 장수를 죽여서 그 방패를 버리고 성을 무너뜨리니 堤川의 敗戰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⁶¹

以上에서 말한것처럼 毅菴이 兵權의 見奪을 두려워 했거나 立功을 猜忌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下克上으로 封建社會 身分制度가 無視되어 平民이 兩班을 辱보이는 것을 憤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騎驢隨筆에서 추측하고 있거니와 이는 毅菴뿐 아니라 그들의 指導理念으로 보아 당시의 儒生 義兵將들은 누구나 다 실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즉 對內的으로 崩壞되어 가는 序階의인 封建社會秩序의 再整備 強化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戰功이 크다 할지라도 平民이 士族을 辱보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소에 金伯善이 士族을 존경하지 않고 그의 용감한 戰功으로 義兵陣將卒間에 절대적 지지를 받아 地盤이 굳어가는 것을 볼때 毅菴은 장차 兵權의 見奪을 두려워 했는지도 모른다.⁶² 그러나 그 功罪의 是非야 어떻게 死生과 興亡을 결정짓는 決戰을 눈앞에 두고 干城이 되는 장수를 죽였다는 것은 義兵陣의 큰 損失이었다. 이 사건은

“自是之後 物情慘담 軍容更不振 後承禹與張參領基濂 戰于堤川之邑 因兵敗而死 義旅遂頓挫餘地 大將麟錫出강 到遠解兵”⁶³

이라 한것처럼 義兵部隊의 基幹을 이루는 農民出身 義兵들에게 큰 失望을 주었으며 이것은 다시 軍容의 不振을 가져와 安承禹는 張基濂에게 敗하여 죽고 따라서 毅菴의 義兵部隊는 결국 挫折을 가져오게 되는 커다란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4. 堤川戰

金伯善이 죽은 다음 그를 따르던 일부 閔義植 沈理燮, 洪秉眞, 李根永등의 이탈이 있었지만 3月 17日에는 金思鼎, 金思斗등이, 27日에는 李範稷, 4月에는 尹義德과 孫永國이 金泰元과 李麟榮의 일부 병력이 합세하고 後軍將 申芝洙는 北倉으로 進軍하여 賊을 격파하였다.⁶⁴ 한편 本陣에서는 賊의 공격에 대비하여 把守에 철저를 기하고 動搖하는 군사들을 撫

⁶¹ 宋相燾 「騎驢隨筆」 金伯善條

⁶² 金義煥 前掲書 pp.116~117.

⁶³ 宋相燾 前掲書 金伯善條

⁶⁴ 朴貞洙 前掲書 丙申年 2月條

摩 격려하며 隊列을 整備하여 民弊를 방지하고 軍律을 엄히 하였다.

한편 官軍의 形勢는 3月 21日 南漢山城의 義兵을 격파한 親衛隊 및 江華鎮衛隊로 구성된 京兵은 京畿義兵의 南下를 추격하며 忠州의 龍塘을 거쳐 4월 23일에는 黃江으로 들어가 可興兵站의 賊과 合勢하였다. 이때 京兵을 引率한 參領 張基濂은 英祖代의 重臣인 忠肅公 張寅植의 4代孫으로 智略이 있고 戰術戰略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張基濂은 忠州지방에 내려와서 다음과 같은 告示文을 堤川義陣에 전달하였으니

“義兵의 名稱이 예로부터 한이 없지만 오늘날 같은 義兵은 없었다. 왜냐하면 朝廷의 命官을 虐殺하고 국가의 公貨를 약탈하기 때문이다.…너희들은 글없는 선비로서 이런 일이 義가 되는 줄로만 알고 이 義學가 도리어 逆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래서 宣諭라는 恩命을 討伐보다 앞선 것이다.…만일 王命에 복종하는 것이 順理가 되는 것을 깨달아 창을 겨꾸로 들고와서 맞이한다면 義學의 처음 마음을 表彰할 것이니와 처음도 義요 나중도 義가 되는 것으로서 혹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만일 어리석음을 고집하여 王師에 抗擧한다면 이것은 제스스로 義의 이름을 무너뜨리고 禍의 그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니 조금도 용서가 없을 것이다.”⁶⁵

라 하였다. 이것은 告示文이나 通文類의 것이 아니고 엄중한 問責이요 명령이었다. 이에 대해 義陣에서는 다음과 같은 照回文을 보냈다.

“지금 義兵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臣民치고 어찌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까 大抵 원수를 갚고 부끄러움을 씻는 일과 尊華攘夷는 萬古에 바꿀 수 없는 몇몇한 義理입니다.…우리들의 人倫이 없어지고 天地가 顛覆되는 큰 禍를 보고 激動하는 義憤心을 참을길 없어서 다치내 원수를 갚고 머리털을 保存한다는 것발을 세우고 軍사를 모으고 死生도 돌보지 않고 成敗도 헤아리지 않고 장차 大義를 天下後世에 펴기로 한것이니 名分이 正大하고…이른바 朝廷에서 임명한 官員을 죽였다는 것은 그가 바로 凶賊의 徒黨이요 나라를 위하는 官員이 아니니 죽였고 公貨를 掠奪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倭賊의 物資요 우리나라의 公物이 아니니 차지하여 賊을 토벌하는 資本으로 삼은 것이다…우리가 固執하는 바는 다만 義理일 따름이요 成敗와 利鈍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니 生死의 脅迫에도 두려울 것이 없고 禍福의 조임에도 動搖될리 없으니 順逆의 구분은 後世의 公論이 있을 것입니다.”⁶⁶

라고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怨讐인 倭賊을 다 없애지 않은 것과 逆黨을 다 없애지 않은것, 先王의 옛 制度를 復舊하지 않은것, 임금이 播遷해 아직 宮闕로 돌아오지 않은것, 國母의 葬禮가 달을 넘어도 行하지 못한것, 국가의 官員이 달아나 朝廷이 텅 비어 있는것 등을 들어 義兵을 解散할 수 없다고⁶⁷ 밝혔다. 이에 張基濂은 다시 毅菴에게 글을 보내어 義兵의 解散을 원하는 동시 전부터 잘 알던 義陣의 左軍將 禹冀鼎에게도 위협의 서신을 보내왔다. 이에 義陣에서도 原州守城將 具哲祖가 張基濂에게 글을 보내어 義兵과 함께 討逆復讐에 나설것을 전하였다. 즉,

⁶⁵ 李正奎 「倡義見聞錄」 張基濂告示文

⁶⁶ 上揭書 回照張基濂書

⁶⁷ 前揭書

“兄의 先祖 忠肅公이나 나의 先祖 忠穆公이 오늘에 계신다면 왜놈을 討伐하시겠습니까 왜놈을 討伐하는 사람을 討伐하시겠습니까 兄은 선뜻 생각을 고쳐 大義를 판단하여 行在所로 上疏를 올리고 우리 陣中으로 와서 힘을 모아 원수인 倭賊을 討伐하여 임금의 마음과 國母의 靈魂과 世子의 마음을 위로하고 大義를 後世에 퍼신다면 忠肅公의 赫赫하신 靈魂이 반드시 나는 後孫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⁶⁸

이외에도 몇차례의 서신왕래가 있었으나 각각의 所信과 使命을 굽히지 않으므로 사태는 決戰의 길도 닳아서게 되었다. 그런데 張基濂의 도착과 함께 3月中에 賊情 偵探을 憑籍하여 可興방면으로 나갔던 沈理燮, 李根永등이 오히려 宣諭委員의 職脚을 갖고 와서 다음과 같은 宣諭詔勅을 전달 하였다.

“...너희들 義學는 可賞한 일이나 지금에 와서는 國事가 자리잡히기 시작 하였다...宣諭書를 보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產策에 힘쓰고 국가를 수고롭게 하지말라 너희들이 首命을 죽인일과, 公錢, 公穀을 죽낸것은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니 모두들 그리알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며 후일 擾亂을 피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군사를 해산하는 즉시 大將과 中軍은 바로 올라오면 당연히 登用하게 될 것이다. 만일 解散치 않는다면 불가불 各國의 軍士와 京軍이 合力하여 討伐할 수 밖에 없다.”⁶⁹

이렇게 狀況이 달라지자 義兵陣의 일부에서는 京軍과의 전투가 어려우니 和親하자는 의견을 내세우는등 어수선 하자 中軍將 安承禹는 憤慨하여

“지금 賊의 무리가 君父를 가둔 후에 누가 정말 임금의 壽命이 한결같이 나오는걸 보았는가 실후 임금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금을 끼고 賊들이 내린 명령이니...이 무리는 모두 倭놈의 形狀을 가진 자들이요 國母를 살해한 자들이니 지금 스스로 와서 죽이려 하는데 도리어 맞아들인단 말이나”⁷⁰

하니 主和論은 고개를 숙이고 防戰을 위한 준비에 바빴다. 한편 陣中에서는 우수한 官軍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地利的 條件이 우수할 뿐 아니라 嶺南 7개郡을 通하여 糧穀을 충분히 供給받을 수 있으며 기회를 보아 水安堡 및 可興의 賊을 공격하면 忠州 堤川일대는 자연 掌握할 수 있는 鳥嶺으로 옮기자는 意見이 있었으나 安承禹는 嶺南으로 가는 것이 이로울것이 없고 도리어 賊에게 弱點만 보이는 것이요 堤川을 중심으로한 一帶의 백성들이 그동안 힘을 다해 軍需品을 供給하고 크게 기대를 하였는데 이를 버리고 갈수 없다고⁷¹ 하여 挫折되었다. 또 陣中에서는 安成海대신 元奎常을, 洪大錫대신 鄭雲慶을 前軍將에 禹冀鼎대신 鄭遠謨를 左軍將에 임명하고 別陣將 元友珪를 本陣을 守備케 하고 李完夏로 仗義將을 삼고 李哲化 金思鼎등이 군사를 이끌고 合勢하고 李麟榮이 모집한 呂國安등 7명의 淸國人도 있었다.⁷² 그중 呂國安은 銃劍術에 能하고 外國人 이면서도 죽음을 걸고 함께 싸울것을

⁶⁸ 前揭書 與張基濂書

⁶⁹ 前揭書 李根永 沈理燮 上大陣書

⁷⁰ 李正奎「六義士列傳」安下沙公條 義兵抗爭史資料集 所載(1970).

⁷¹ 前揭書「義兵抗爭史」p.270.

⁷²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3月條

맹세하니 陣中의 군사들에게 큰 感銘을 주었다. 따라서 5월 상순부터는 義兵活動이 活發하여 申芝洙는 賊兵 수십명을 죽이고 李範直, 韓東直은 沈相禧와 長湖院의 賊을 공격하고 申芝洙, 元奎常, 李麟榮등은 可興의 賊을 공격하였다.⁷³ 그러는 가운데 京軍과 日軍이 合勢하여 5월 27일 張基濂의 지휘아래 黃石村으로 밀려왔다. 그리하여 義陣에서도 이에 대항하였으나 날이 춥고 防禦의 여유도 없어 군사들이 모두 堤川本陣으로 물러들었다. 더구나 굶은비에 날씨도 춥고 京軍의 공격은 계속되니 義兵의 士氣는 沮喪되었다. 이에 安承禹는 군사들을 격려하며 군사를 東北山城에서 서쪽 保壘에 埋伏하여 손수 火藥을 재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칼을 들어 싸움을 督勵하였으며 淸國人 呂國安은 앞에서 총을 쏘아 32명을 射殺하니⁷⁴ 官軍은 退却하였다. 그러나 다시 총공격을 가하여 오고 더구나 큰바람이 서남쪽에서 불어오며 빗발이 내리쳐 군사들이 손발을 움직일 겨를이 없는데다 내리는 비때문에 火繩銃에 불이 붙지않고 火藥도 터지지 않아 武器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사태가 이러하자 서쪽 保壘가 먼저 무너지자 安承禹는 賊에 대항하여 싸우다 32세의 나이로 戰死하였다. 한편 19세의 소년 洪思九는 安承禹의 弟子인 동시에 從事로서 그의 스승이 죽자 官軍을 크게 꾸짖기를

“네가 禽獸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다면 忠臣과 逆賊 사람과 짐승의 구별은 알 것이다. 우리가 大義를 위하여 賊을 討伐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이럴수가 있느냐”⁷⁵

하며 차고있던 칼로 賊을 치려다 물칼에 찔려 죽고 말았다. 이와 같이 堤川의 싸움에서도 역시 敗하고 말았으니 敗戰의 原因을 살펴보면

첫째, 武器가 官軍이나 日本軍에 비해 뒤떨어졌던 것이다. 義兵들의 武器는 거의가 火繩銃으로 動作이 더디고 風雨가 있을때면 총의 發射가 不可能한데 비해 相對의 銃器는 모두 新式銃으로 동작이 빠르고 天候에 拘礙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武器의 弱點은 그간의 戰鬪에도 많은 不利를 갖여왔지만 특히 堤川戰에서는 決定的인 敗戰을 갖여왔다.

둘째, 情報關係에서 官軍側이 훨씬 앞섰다. 즉 이때 義陣에서는 官軍에 同調하는 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으니 義陣의 從事, 司糧등 幹部級에 속하던 沈理燮, 李根永등이 賊情을 偵探한다는 구실로 可興지방에 나갔다가 宣諭委員의 職脚을 띄고 官軍과 함께 오기도 했으며 洪秉眞, 洪承學등이 모두 陣中에서 어느 정도 信任을 받던 人物인데 官軍의 便이되어 활동하였으며 左軍將 禹冀鼎 역시 前의 親知關係로 張基濂을 만난후 病을 핑계로 謝면하였던 것이니⁷⁶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義陣의 大小事는 이미 자세히 官軍側에 알려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義兵陣 內部の 團合이 缺如되었음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中軍將 安承禹는 忠

⁷³ 前揭書

⁷⁴ 朴貞洙 前揭書 丙申年 4月 13日條

⁷⁵ 李正奎「六義士列傳」洪思九條

⁷⁶ 前揭書「義兵抗爭史」

義一念으로 軍中の 일을 단속하며 生死를 돌보지 않고 勤勤孜孜 하였지만 원래 武事に 능하지 못하고 또 性格이 強直하여 軍士들의 작은 不正도 용서하려 하지 않았기에 때로는 軍士들의 反感과 誤解를 사는일도 없지 않았다. 金伯善에 관한 일이나 申芝洙가 內賊을 먼저 배고 난뒤 外賊을 討伐할 수 있고 陣中이 和睦하여야만 勝負를 議論할 수 있다면서 中軍을 배어야 한다고 대들은 일⁷⁷ 그리고 閔義植, 沈理變, 洪秉眞, 李根永등 從事들과의 不和는 결국 이들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서울로 가서 安某가 反亂을 일으키려 한다는 거짓 선전을 하게끔 惡化되기도 했었다.⁷⁸ 또 堤川戰을 앞두고 中軍을 一線인 黃岡에 出戰시켜야 하느니 中軍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論議가 분분했던것도⁷⁹ 다 여기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義陣의 중요한 幹部였던 洪大錫과 李康年 사이가 이미 水安堡戰때 부터 벌어져 갖가지 不協和音을 낳았으니⁸⁰ 어쨌던 重大한 決戰을 앞두고 內部的 紛爭이란 결국 戰鬪力을 弱化시키는 결과를 招來케 되었던 것이다.

5. 義兵의 西北移動

堤川戰에 敗한후 毅菴은 軍士를 鶴橋로 集합하고 이튿날 丹陽으로 갔다가 5월 28日에는 豐基에 駐屯했으나 安東府 官軍의 공격을 받아 永春으로 들어갔다.⁸¹ 그러나 곳곳에서 官軍의 공격을 받아 軍士들은 지치고 落心하여 갈수록 마음이 動搖되자 毅菴도 글을지어 文廟와 殿閣에 告하였으니

“小臣 柳麟錫은 나라의 원수를 잡고 聖賢의 道를 保存하기 위하여 義兵을 일으켜 賊을 치고 倭를 討伐하였으나 計劃이 拙劣하고 힘이 다하여 소위 開化兵의 大將 張基濂에게 조용히 잡혀 죽사옵니다. 아아 단사가 끝났습니다.”⁸²

하고 官軍에게 進軍하라 했지만 將卒들이 서북쪽으로 가서 軍사를 모집해 다시 舉義하고 만약 如意치 못하면 中國으로 들어가 表世凱에게 救援을 請하고 그 역시 如意치 못하면 齊나라와 魯나라 사이에 들어가 우리 옷과 머리털을 지녀 한가닥 中華의 命脈을 保存하자고⁸³ 하자 毅菴은 軍사를 거느리고 淸風 丹陽을 거쳐 忠州로 나왔다가 陰城방면으로 가서 모여 드는 官軍과 倭賊을 수차에 걸쳐 擊破하여 많은 賊을 죽이고 武器와 彈藥을 얻었다. 그러나 賊이 各處에 点據해 있어서 더 進出할 수 없어 軍士들을 忠州 隱岨으로 集합하였다가 6月 10日에는 原州, 康川으로 나왔다가 2주간을 忠州, 堤川을 왕래하며 다시 堤川의 茅山으로 옮겼다.⁸⁴ 이때 宣諭委員 鄭彥朝가 宣諭를 하러 하였다. 原來 彥朝는 義兵이었으나

⁷⁷ 李正奎 「倡義錄」

⁷⁸ 前揭書, 前揭 「義兵抗爭史」 p.38.

⁷⁹ 朴貞洙 前揭書, 下卷 丙申年 3月 27日條

⁸⁰ 朴貞洙 前揭書, 下卷 丙申年 4月 3日條

⁸¹ 元容正 「毅菴先生 西行大略」 4月 13日 義兵抗爭史資料集 所載(1970).

⁸² 元容正 前揭書 丙申年 4月 23日條

⁸³ 前揭書

⁸⁴ 元容正 前揭書 丙申年 5月條

몰래 빠져나가 宣諭委員으로 내려오자 毅菴은 義兵을 일으킨 目的과 義兵을 解散할 수 없는 理由를 賊을 討伐하고 怨讐를 갚으려던 처음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⁸⁵ 그리고 將領들에게

“이제 이 義學는 2가지 목표가 있으니 하나는 聖人의 道를 保存하는 것이요 하나는 國家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국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세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 우리나라 5백년 동안 先王께서 이룩해 놓은 지극히 아름다운 法度가 되놈에게 짓밟힌 것이요 둘째, 임금께서 辱을 당하신 것이요 셋째, 國母가 弑害를 당한 것이다. 聖人의 道를 保存하자는 것은 4천년동안 전해온 文明의 正脈이니 義兵을 解散할 수 없다.”⁸⁶

고 하였다. 그리고 7월 4일(陰曆 5월 23日)에는 上疏를 올려 그동안 舉義討賊한 經過를 말하고 還宮, 因山등의 節次가 끝나고 奸臣들을 몰아내고 忠誠되고 어진 사람들을 登用하여 國政이 바로 되는날 義陣을 解散할 것을 아뢰었다. 즉,

“國家今日之變 尚忍言哉 權奸蔽之於前 亂賊壞之於後其標題 則新法之開化也 其蒿矢則世讐之日也 其醜穢凶逆萌於丙子 極於甲午…於是呼改正朔 易服色 變官制 革州郡 尺地一民 無復我祖宗 裕後典型 而肆然莫之或禦 然後 至昨年八月 而坤闕被不可問之禍 十一月而 聖躬受不敢言之辱 下逮鄉土黎庶 無以保父母遺體 靡然陷於 禽獸之域 嗚呼痛矣”⁸⁷

라 하여 義兵을 일으킨 動機와 日本 및 開化派들의 罪惡을 들고 있다. 즉 正朔을 고치고 衣服을 바꾸고 州郡을 改革하여 한자의 땅이나 한사람의 백성에게도 우리 祖上이 물려주신 典型이 없게하며 國母가 禍를 입은것과 君父의 削髮의 恥辱등 모두 開化輩와 日本의 罪惡이라 하고 이어서 義兵을 일으킨 目的에 대해서는 亂臣과 賊子는 사람마다 배일 수 있다는 春秋大義와 先斬後報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한사람의 賊黨과 倭賊만 없어도 조금이라도 神人의 憤함을 풀 수 있으며 天下로 하여금 임금의 원수는 당연히 갚아야 하고 中華의 命脈은 당연히 保全되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⁸⁸ 또 義兵을 解散할 수 없는 이유로 10賊의 무리가 줄지어 있고 왜놈의 部隊가 連結되어 있는것, 正朔을 고친것 衣服을 바꾼것, 官制의 變更과 州郡의 改革도 前과 같고 殿下가 머리까지 깎였으며 아직 大闕로 돌아오지 않은것, 國母의 葬禮도 舉行하지 못하여 典禮는 아직도 빠져 있으며 모든 百官은 달아나 사망은 疑懼心에 쌓여 국가의 위태로운 形勢는 前에 比較하면 배나 더한 것을 들고 자신이 분에 넘치는 義兵을 일으켜 생각은 컸는데 힘은 적은 所致로 말미암은 罪가 하나요 至誠이 發露되면 하늘도 感動하는 것인데 自身の 微微한 忠심이 밝은 殿下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 罪의 돌이요 成敗를 생각지 못하고 오직 賊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하고 조그만 攻劬나마 세우려는 생각에서 구차스레 목숨을 扶持하고 있는 것이 罪

⁸⁵ 元容正 前揭書 丙申年 5月 10日條

⁸⁶ 元容正 前揭書 丙申年 5月 19日條

⁸⁷ 李正奎 「倡義見聞錄」 上疏條

⁸⁸ 前揭書

의 셋이라 하고 임금에게 大闕로 돌아와 國母의 葬禮를 舉行하고 忠臣과 어진이를 登用하여 小人을 물리치고 姦賊을 掃除하고 倭賊을 몰아내시어 그로 하여금 旣을 지켜 軍務를 버리고 물러가 喪服을 입고 先王이 制定한 禮를 지켜 忠孝의 罪人을 면하게 하여 달라고 아뢰었다.⁸⁹

그런뒤 義陣은 寧越, 平昌, 旌善을 거쳐 江陵을 지나 7월 11일 大和에 이르렀으나 장마비는 계속되고 軍士들의 食糧은 모자라고 官軍은 사방에서 공격하여 義陣은 困境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楊口 鳥川, 水橋, 銀溪, 平康, 流淵, 大門, 小金剛, 龜塘을 거쳐 陰曆 7월 2일에는 安邊의 永豐에 留陣 하였다.⁹⁰ 한편 軍部大臣의 指示로 毅菴을 체포하면 當五錢 1만냥의 賞金이 붙었고 義陣은 더더욱 困境에 처하자 毅菴은 元容正에게 袁世凱에게 救援은 請하는 글을 짓게하고 李弼熙, 俞致慶, 宋尙奎를 먼저 南京과 北京으로 가도록 한뒤 義陣은 永興, 陽德, 孟山, 德川, 寧邊, 雲山을 거쳐 8월 23일(陰曆 7월 16日)에는 楚山에 도착하여⁹¹ 官軍 3백여명과 激戰이 있었는데 이때 2백여리 밖에서 病으로 뒤떨어졌던 水安堡戰에서 戰死한 孫德化의 어린아들 龍文이 달려와 賊들이 공격한다는 情報를 알려주어 큰 禍를 면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龍文이 決心한 2가지는 첫째, 父親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고 둘째, 父親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⁹² 또 江界妓生 蘭紅이 慈城에서 놀다 오는길에 義兵 13명이 묶여 가는것을 보고 값진 佩物을 주고 義兵을 놓아주게 하였다는 逸話도 있었다.⁹³

한편 毅菴은 8월 28日(陰曆 7월 20日)에 다시 한번 政府百官에게 反省을 促求하고 國政을 바로 잡을 것을 호소하는 再檄百官文을 보내어

“...바라건대 여러분 執事들은 지난 歷史를 거울삼고 마음을 고쳐서 내몸보다 임금을 먼저 생각하고 내집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원수의 盜賊을 討伐하고 我賊을 膺懲하며 끝내는 天地間의 큰 倫理를 붙들고 宗廟社稷의 原모습을 회복케 하여 저 孔子의 春秋 큰 義理에 罪를 얻음이 없다면 前日에 착하지 못함을 누가 무어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말할 것이라 天地神明도 성년것을 그칠것이요 先王과 先賢들도 노여움을 풀것이며 임금은 그 忠誠을 기리고 못난 사람들은 그 밝음을 우러러 본 것이다.”⁹⁴

라고 하였다. 그리하고 그날로 楚山 阿夷城에서 鴨綠江을 건너 奉天省 寬甸縣의 沙尖에 도착하여 孫鴻齡의 待接을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懷仁縣을 지날때 縣宰 徐本愚가 國際法에 武器의 所持를 禁함으로 부득이 波瀾江에서 義陣을 解散하게 되었으니 이때 義兵은 290명이었다.⁹⁵ 그리하여 毅菴은 元容正 朴貞洙등을 袁世凱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했으나 별

⁸⁹ 前揭書

⁹⁰ 元容正 前揭書 丙子年 6月條

⁹¹ 元容正 前揭書 7月條

⁹² 元容正 前揭書 7月 16日條

⁹³ 李正奎 「倡義錄」

⁹⁴ 前揭書 「義兵抗爭史」 p.28. 「再檄百官文」 毅菴集 卷45 「再檄百官文」

⁹⁵ 毅菴集 卷55 年譜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毅菴은 元容正, 鄭雲慶, 朴貞洙, 金華植 등 모두 21인 을⁹⁶ 데리고 通化縣 등을 돌아다니며 後生들을 교육시키고 居留民을 糾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毅菴과 門下生들은 國王의 召命 또는 故國이 그리워 자주 國內에 來往하며 西北지방의 人事들과 交結하여 救國의 方途를 講求하였으니 毅菴의 精神은 그후에도 繼承되어 後期 義兵에 영향을 주었으며 後日 滿州 遼東 等地的 武裝 抗日鬪爭으로 繼承되어 갔던 것이다.

IV. 義兵抗爭의 制限性과 寄與性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義兵運動은 朱子學的 이데오로기와 結附된 朝鮮朝 民族運動의 特殊한 한 型態로서 거기에는 첫째, 異民族 侵略에 대한 民族意識의 自發的 發動이 있었고 둘째, 거기에는 民族意識이 集團의으로 結合할 수 있는 大衆動員의 基盤이 있었다는 점에서 近代的 民族主義 運動에로의 一步 前進이 있었던 것이다.⁹⁷ 그러나 이와 같은 民族主義 이데오로기는 民族 그 自體에 대한 價値보다는 爲國死忠 捨身取義와 같은 化家爲國의 國家 倫理와 性理學的 價値觀이 보다 優先하였고 그 결과 거기에 動員된 大衆도 자연히 그와 같은 儒家的 價値秩序에 師事되고 定向된 知識階層 으로서의 儒者들 이라는 制約性을 갖이고 있었다. 즉 당시의 民族的 이데오로기는 儒家的 規範에 定向된 上流階層만의 價値體係로서 擴散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民族的 이데오로기가 標榜했던 價値도 同質性으로 認識되는 共同運命體로서의 民族 그 自體라기 보다는 合理와 義務의 對象으로 解釋되는 王朝의 自己 秩序였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民族的 對外的 個別性和 對內的 個別性을 함께 그 基盤으로 하는 近代的 民族運動 그 自體로 同一化 할 수는 없겠다.⁹⁸ 이러한 觀點에서 金榮國氏는 義兵의 屬性을 다음과 같이 體係化 하였다.⁹⁹

첫째, 義兵은 公的인 對象에 대한 強한 倫理的 價値를 標榜하고 있다. 이때 그들이 標榜한 가치의 내용은 捨身取義라는 儒家的 規範이요 그것의 對象은 곧 國家이다. 여기서 國家의 概念은 朝鮮朝 特有的 統治秩序 및 文化意識으로 인하여 國王의 概念과 合一되고 그것은 또 民族의 概念과 同一視된다. 즉 東洋的 家產國家(patri monial state)觀 아래에서는 國土와 國民은 國王의 所有이며 國王은 國家의 모든 것에 대한 包括的 所有主로 承認되기 때문에 國家는 곧 國王으로 대표되고 爲國의 概念은 勤王의 사상으로 표현된다. 다만 朝家나 王家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가의 개념은 당시와 같이 국가를 私家的 延長으로 생각하고 있던 化家爲國의 文化意識下에서는 國家는 吾族과 吾道를 維持시켜 주는 包括的 象徴으로 發展되기 때문에 그것은 民族과 文化의 概念을 그속에 이미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여

⁹⁶ 前掲書

⁹⁷ 金榮國「韓末 民族運動의 系譜的 研究」『韓國政治學會報 第3輯(1969)』, p.87.

⁹⁸ 前掲書

⁹⁹ 金榮國「韓末 義兵의 思想的 考察」『韓國社會科學論叢 卷10, (1969)』, pp.21~23.

기서 爲國은 國家的 側面과 民族的 側面을 同時에 包括하게 되고 따라서 爲國의 概念은 愛民의 精神으로 同一視 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忠의 概念은 勤王과 爲國과 愛民등으로 合一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義兵들이 標榜한 忠의 概念은 그것이 단순한 愛國愛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一步더 發展하여 그것은 討逆과 伐賊이라는 春秋思想의 基盤을 隨伴함으로서 倫理的 價値選擇을 前提로 하는 國家的 倫理로서의 忠의 思想과 春秋의 精神으로서의 義의 思想이 密接하게 結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둘째, 義兵運動은 그것이 確保하여야 할 價値內容에 대한 反對事象의 契機로서 그것이 물리쳐야 할 뚜렷한 對象을 設定하고 있다. 그와 같은 排斥對象은 물론 保護하여야 할 目標價値로서의 우리 國家에 挑戰하는 對外的 要素인 것이다. 이때 對外的 要素는 우리에게 侵入하는 단순한 外國人 이라는 形式的 對象만이 아니요 적어도 우리의 것에는 도저히 受用될 수 없다는 本質的인 異質性의 確認을 그 前提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文化的 異質性을 前提로 하는 外族의 概念은 곧 東洋的 夷의 概念으로서 여기서 儒林 義兵運動의 思想的 基盤은 언제나 그 始初는 尊王攘夷의 精神과 結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夷라는 對外的 對象은 그 自體 만으로서 곧 義兵運動의 排斥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어도 그 過程에 있어서의 不當性이 함께 指摘될 때 비로서 討罪의 對象으로 登場된다. 여기서 義兵運動의 排斥對象은 夷라는 異質性에 대한 現象的인 排他性和 그들이 敢行한 不義 內容에 대한 本質的인 排他性의 結合에서 나타난다.

셋째, 義兵運動은 그들이 保護하려는 目的價値에 대한 召命을 歷史的 事實에서 求하고 있다. 즉 그들이 守護하려는 目的價値의 標榜은 그것을 破壞하려는 排斥要因의 登場을 前提로 하는바 그와 같은 排斥要因은 歷史上 항상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義兵에 있어서의 舉義의 召命은 民族史의 歷史的 契機에서 마련되는 바 이와 같은 義兵 動機의 歷史性은 義兵運動을 그 歷史的 存在形態에서 規定지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重要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乙未義兵의 特色을 살펴보면

첫째, 壬辰倭亂때 義兵의 傳統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니 學者들이 中心이 되어 앞장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요즈음 일컫는 現實參與를 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學問의 眞理 正義의 뜻을 實踐에 옮겨 行動化 한다는 보다 더 強力하고 積極的이요 또 主體的인 運動이었던 것이다.

둘째, 義兵活動이 다만 日軍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合勢한 官軍과 맞설 수 밖에 없었던 二重鬪爭의 苦悶이 있었던 것이다. 다같은 學者들의 蹶起였지만 壬辰倭亂때는 政府가 오히려 民間義兵을 불러 일으켰고 倭賊을 물리치기 위해 官軍과 義兵들이 合流했으며 朝廷에서는 義兵들을 讚揚하고, 激勵하고 褒賞하고, 正式으로 職帥까지 내려 주었지만 이때의 義兵들은 日本勢力의 侵透를 막는 民族抗爭으로서만 足하지 않고 안으로는 그들의 앞잡이인 官軍과 싸워야 하는 더 큰 쓰라림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日本과 合流

하여 開化政策을 強要하는 官吏들을 射殺 하였으니 義兵鬪爭이 激甚하던 江原道에서 만도 1895년 12월까지 義兵에게 殺害된 官僚가 20여인이나 되었고¹⁰⁰ 그해 겨울에서 이듬해 6월까지 官報에 오른 高官의 被害者는 莫大 하였으니 즉 晋州觀察使 趙秉弼, 南原觀察使 白樂倫, 羅州觀察使 趙漢根 등은 義兵에게 쫓겨 官職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春川觀察使 曹寅承, 安東觀察使 金奭中, 忠州觀察使 金奎弼, 義城郡守 李觀永, 盈德郡守 丁在寬, 禮泉郡守 柳寅衡, 淸風郡守 徐相耆, 丹陽郡守 權灑, 天安郡守 金炳塾, 襄陽郡守 楊命學, 高城郡守 洪鏡憲, 砥平郡守 孟英在, 安東警務官 林炳元, 江陵警務官 李敬善, 郵遞主事 金戴潭, 羅州參書官 安宗洙, 摠巡 朴喜昊, 摠巡 黃穆, 稅務視察 印錫輔, 廣州府尹 朴基仁, 忠州府主事 洪裕政 등은 義兵에게 被殺 당했다.¹⁰¹ 그리고

“其漏於官報者 頗有之 云云”¹⁰²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全國的으로 일어났던 義兵들에게 殺害당한 숫자이나 義兵들이 얼마나 이들에 대한 反感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 決死의 이었다. 그것은 正義에 立却한 運動이었고 또 民族魂의 부르짖음으로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기껏해야 火繩銃 정도로 싸움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無謀한 것이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毅菴의 檄文中에도 成功과 失敗는 우리가 헤아릴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을 몇번이나 되풀이 했다.

네째, 그들은 오직 義理로서 戒銘을 삼았던 것이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子息이, 子息의 處事를 痛憤히 여겨 아버지가 나서고 스승의 죽음 곁에서 弟子가 따라 싸우다 주는 등 義理로 一貫된 투쟁이었다. 즉 朱庸九의 아들 鉉九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喪中에도 從軍한 것이던지¹⁰³, 毅菴의 義陣이 楚山에 머무를 때 賊이 공격한다는 情報를 알려주어 勝利를 가져오게 한 孫德化의 아들 龍文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從軍하여 提報한 것이며¹⁰⁴ 安承禹의 弟子이며 從事인 洪思九가 19세의 少年으로 下沙가 죽자 적을 꾸짖으며 따라 죽는 등의 일로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義兵抗爭을 通하여 갖가지 寄與性을 갖는 반면에 儒生 義兵將들이 갖인 思想的인 限界性으로 말미암아 反帝運動을 反封建運動과 연결시켜 그 運動을 徹底化 시킬 수 없었던 것이니 그 制約性으로는

첫째, 모두들 獨自的 個別的으로 일어났을뿐 組織的인 計劃과 서로 連結하여 一體的인 行動을 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즉 毅菴이 舉義했을 때 可與에서 閔龍鎬가 舉義하여 毅菴의 軍士를 뺏아가려 했기에 安承禹가 閔龍鎬를 치자고 까지 했던 사실과¹⁰⁵ 金福漢의

¹⁰⁰ 黃玟 前揭書 卷2 高宗 32年 乙未 12月條

¹⁰¹ 黃玟 前揭書 高宗 33年 正月 丙申條

¹⁰² 前揭書

¹⁰³ 李正奎 「倡義錄」

¹⁰⁴ 註92와 同

¹⁰⁵ 李正奎 「倡義錄」

洪州 義兵은 毅菴의 堤州 義兵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 등이다.

둘째, 武器의 部足과 본격적인 組織 및 訓練의 缺如를 들 수 있다. 義兵들은 義氣와 名分으로 일어났으나 武器는 기껏해야 砲手들을 中心으로 한 火繩銃이 고작이었으니 잘 訓練된 官軍과 日本軍에게 더구나 이들에게는 新式武器가 갖추어져 있었으니 희생은 義兵側이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다. 堤川戰에서 敗한 決定的 原因도 氣候의 갑작스런 變化로 인한 火繩銃의 使用을 못한것에 있었으며 訓練의 部足에서 오는 隊列의 離散등을 들 수 있다.

셋째, 指導層인 儒生間의 軋轢과 老儒와 젊은 儒生間에 思想的인 差異에서 오는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老儒들이 從來 取해오던 上疏, 自靖守節등 消極的인 방법은 젊은 門徒들로 하여금 이러한 消極的인 방법을 넘어서 武力抗爭이란 積極的인 方法으로 나서게 하였으니 毅菴이 乙未事變後 處義有三을 내세워 각기 뜻대로 할 것을 말하고 自己는 去國을 하겠다는 消極的인 方法을 取한데 반하여 젊은 門徒들은 積極的인 方法을 擇해 毅菴이 義兵을 주관해 주기를 請했으나 母의 服喪中이라는 理由로 거절하자 門徒들이 伯禽이 居喪中에도 我를 친것을 孔子가 許한 例를 들어 결국 毅菴을 나서게 한 것이나¹⁰⁶ 申芝洙가 中軍인 安承禹를 베어야 한다고 대들던 사실이나¹⁰⁷, 安承禹가 沈理燮, 閔義植, 洪秉眞, 李根永등과의 不和로 결국 이들은 官軍側에 불게 하여 義陣의 弱點만 알리는 結果를 招來하였으며 李康年과 洪大錫의 不和는 大將所에서 직접 中裁하리 만큼 惡化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으니 이러한 內部分裂은 결국 戰鬥力을 弱화시키는 結果를 갖여왔다.

넷째, 儒生 義兵將과 農民들과의 階級的 差異에서 오는 矛盾을 잘 調和하지 못하였다. 즉 義兵을 指導한 義兵將은 대부분이 儒生들 이었으나 兵力은 대부분 農民들 이었으니 두 階級的의 調和가 이루어질 때 勝利가 있음은 當然한 일이나 이들 儒學者들의 衛正斥邪 思想中에는 斥洋斥倭라는 寄與性이 있는 반면 이들 思想의 根底에는 堯舜三代의 舊制度, 舊文化를 金科玉條로 알고 三綱五倫을 道德의 根本으로 하여 忠孝를 最高의 善으로 評價하는 評價基準 아래서는 近代文明의 性格을 理解하지 못하고 對內的으로는 허물어져 가는 封建制度和 倫理를 再整備 強化하여 封建的 社會秩序로 復舊시키려는 思想이었으니 큰 制約이 되었으니 農民과의 큰 矛盾이 생기게 되었다.¹⁰⁸ 그 代表的인 例가 砥平의 平民出身 金伯善의 處斷事件을 들 수 있다. 이 事件으로 말미암아 義兵의 基幹을 이루는 農民出身 義兵들에게 말할수 없는 失望을 주었으며 이는 軍容의 不振을 갖여오게 되어 張基濂軍에게 敗하여 결국은 義兵鬪爭의 挫折을 갖여오게 되었다.

以上の 理由外에도 1896년 長城에서 奇宇萬이 起兵한 것을 보면

“…時湖南人 以他道皆有義兵 而恥獨無之 愆濶宇萬 使之建旗 然門族恣橫 鄉里苦之 其徒會者 皆深衣 大冠 揖讓序進 無糧械無紀律 觀者卜其必償 進屯光州”¹⁰⁹

¹⁰⁶ 宋相燾 前揭書 「柳麟錫條」

¹⁰⁷ 前揭書 義兵抗爭史 p.270.

¹⁰⁸ 金義煥 前揭書 p.113.

¹⁰⁹ 黃玆 前揭書 卷2 建陽元年 正月條

라고 한 것처럼 起兵後에 序階的인 封建社會의 兩班의 特權意識에 의한 그들 門徒들의 橫恣로 鄉里에서는 많은 苦痛을 받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農民들의 協力을 制限하였으며 이들은 戰鬪時에도 兩班 道德을 遵守하여 深衣 大冠을 하고 揖讓序進을 지켰다는 것은 無糧械 無紀律과 아울러 戰鬪에서의 儒生의 脆弱性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단 全羅道 뿐만이 아니라 文錫鳳이 報恩에서 舉義할 때 隣近邑의 儒生들이 모두 巾과 袍를 입고 참가하였다.¹¹⁰고 함을 볼 때 전국적인 現象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申奭鎬氏도 그의 「韓末 義兵의 概況」에서 당시 義兵大將은 대개 道袍를 입은 儒學者들이며 그 部下들도 또한 그런 사람이 많았다¹¹¹고 한다.

以上에서 寄與性和 아울러 制限性을 살펴보았으니 대체로 儒生 義兵將들은 義兵鬪爭으로의 寄與性和 아울러 그들의 身分的 限界에서 오는 指導理念은 大衆的 基盤이 弱하였으므로 드디어 義兵 鬪爭은

“勦削之初 舉國憤怒 所以激義兵之起 然日月稍久 銳氣消散”¹¹²

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儒生 義兵將들은 그들의 身分的 限界性으로 말미암아 反帝鬪爭에다가 反封建鬪爭으로 連結할 수 없었던 것이니 이러한 性格이 強化되는 것은 乙巳條約 以後 平民 義兵將들이 차차 登場하여 鬪爭이 보다 大衆的 基盤을 차지하고 頑強性을 띄움으로 可能하였던 것이다.¹¹³

V. 結 論

以上 위에서 살펴본대로 甲午 農民戰爭이 日本의 武力干涉으로 失敗로 돌아가고 農民軍의 指導者들이 處斷한 後 日帝侵略의 強化라는 客觀的인 情勢下에 乙未事變과 斷髮令을 契機로 일어났던 初期 義兵鬪爭은 儒生 義兵將들의 指導下에서 일어났고 또 그後 全國的인 鬪爭의 發展을 가져왔다.

毅菴 柳麟錫이 主導한 初期 義兵은 그 特色은 이미 밝혔듯이 壬辰倭亂때의 義兵의 傳統을 이어받아 學者들이 中心이 되었고 官軍과 日本軍을 相對해야 하는 二重의 괴로움이 있었으니 壬辰倭亂때는 政府가 오히려 民間義兵을 불러 일으켰고 激勵하고, 褒賞하며 正式으로 職脚까지 주었는데 反해 而今安在의 感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正義에 立却한 그리고 外勢의 不當한 침투에 祖國과 自身을 지키는 強靱한 使命感에서였기 때문에 成敗死生은 헤아릴 바가 아니라고 毅菴의 檄文中에 몇번이나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義理로서 아버지 뒤를 이어 子息이, 子息의 處事를 痛憤히 여겨 아버지가, 스승의 죽음 곁에서 弟子

¹¹⁰ 黃玿 前揭書 高宗 33年 乙未 10月條

¹¹¹ 申奭鎬 「韓末 義兵의 概況」 史叢 第1輯 高大史學會刊(1955), p.8.

¹¹² 黃玿 前揭書 卷2 建陽元年 正月條

¹¹³ 金義煥 前揭書 p.119.

가 따라 죽는등 義理로 一貫되었다. 한편 失敗한 理由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모두들 獨自的 個別的으로 일어났을뿐 組織的인 計劃과 連結을 通해 一體的인 行 動을 하지 못했던 점

둘째, 武器의 部足과 組織 및 訓練의 缺如를 들 수 있다.

셋째, 指導層인 儒生間의 軋轢과 內部團合의 缺如를 들 수 있다.

넷째, 儒生 義兵將과 農民들간의 階級的인 차이에서 오는 調和를 이루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아무튼 義兵抗爭은 失敗하고 말았지만 이러한 義兵抗爭을 通하여 主體意識은 더욱 強靱 性을 갖게 되었고 民族이 一致團合하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으며 民族獨立이 單純한 感情的 否定的인 것에서 벗어나 主體의 力量育成에서 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肯定的 힘의 培養 내지는 近代思想의 鼓吹라는 方向으로 나가 後日에 나타나는 民族勢力의 組織的 運動의 基盤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毅菴集, 景仁文化社刊(1970).

獨立運動史 卷1「義兵抗爭史」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1970).

獨立運動史資料集 卷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刊(1970).

金榮國「韓末 民族運動의 系譜의 研究」韓國政治學會報 第3輯(1969)

金義煥「義兵運動의 思想的 側面」韓國思想 卷8 韓國思想研究會編(1966).

金義煥「日帝의 朝鮮侵略과 初期義兵 鬪爭」, 東國史學 9.10合輯(1969).

金榮國「韓末 義兵의 思想的 考察」韓國社會科學論叢 卷10(1969).

李正奎「從義錄」獨立運動史資料集 卷1(1970).

朴貞洙「下沙安公 乙未 倡義事實」獨立運動史資料集 卷1(1970).

李正奎「六義士列傳」獨立運動史資料集 卷1(1970).

李正奎「倡義見聞錄」獨立運動史資料集 卷1(1970).

朴貞洙, 姜順熙「雲崗先生 倡義日錄」獨立運動史資料集 卷1(1970).

元容正「毅菴先生 西行大略」獨立運動史資料集 卷1(1970).

宋相燾「騎驢隨筆」

朴殷植「大韓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韓國痛史」

黃 玟「梅泉野錄」

金泉陽「愛國思想家 柳麟錫」漢陽 12號(1962).

A Study on Yu In-sok

Se-kyu Kim

G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Yu In-sok's life was filled with a patriotic spirit throughout 74 years of his life. He was born in when the Yi dynasty was in the whirlpool of accommodating Christianity and opening her doors to the outside world.

Earlier in his life, deeply influenced by Lee Hang-no, a famous Confucian scholar, Yu insisted on the idea of "Rejecting the Occident and Refusing Peace with It."

Against the Bilateral Treaty of 1876 between the Yi dynasty and Japan, Yu, together with his henchmen, appealed to King Gojong not to validate the treaty.

When the self-imposed group of people rose up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incident in which Queen Min was assassinated by a group of Japanese hoodlums and the decree requiring the people to cut their traditional long hair, Yu sought to attack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their jackals who appeared to be national traitors and egotistic open-door policy supporters.

His idea at the time was to restore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o protect the traditional civilization when the dynasty was on its way to downfall.

He was defeated by Gen. Chang Kee-yong of the royal army, and had to withdraw to the north-western regions of the country until he finally took refuge in Liaotung in China where he led a tradition-oriented life while trying to redeem the national sovereignty.

After years in Liaotung, he could return home at the behest of King Gojong and formed a militia to inspire the people with enthusiasm and to protest against the Ilchin-hoe, a pro-Japanese group, shuttl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Yalu River.

As the Treaty of 1896 was signed between the dynasty and Japan, Yu decided to stage a long drawn-out struggle against Japan because the resistant spirit might be broken by a possible lack of assistance from outside of the country.

He pledged with his compatriots in Vladivostok to make efforts to do the best of his ability toward enthusiasm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headed the people's

army which was gathered from 13 regions of the country.

Yu's positive anti-Japan warfare, however, suffered a fatal blow at the time of the tragic annexation of the dynasty by Japan. Without being frustrated, he appealed in his letter to King Kojong to take refuge in Vladivostok of Russian territory.

Since he noticed that all of his desires had never been fulfilled, he went to Liaotung again and inspired youngsters with his patriotic spirit until he died there in 1915.

His army at one time reached about 3,000 people, who could control the Chechon, Wonju and Chungju areas at the pinnacle of its strength. But due to the rainy season in the following year, lack of arms, discord between Confucian scholars and farmersoldiers, deficiency in their organizing ability and so on, he was defeated by the royal army.

Despite his failure to repel the Japanese invasion, noteworthy is the fact that his resistant spirit inspired the people with national identity, and further strengthened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with a positive attitude. He also demonstrated the need to solidify Korean compatriots in times of national hardships.

Yu taught the people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steer toward cultivating national identity, transcending emotional and negative attitudes. This enabled them to enhance their organizing ability and to stage an effective movement toward their independence.